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이하나* · 조철기**

An Analysis on Territorial Education of Geography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Lee, Ha-Na* · Cho, Chul-Ki**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등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교육 내용은 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각을 중시한다면,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영토교육 내용으로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확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영역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역 가운데 영해에 대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영해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시한 지도를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영해의 수준을 넘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인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영역의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4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극의 위치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일본은 4극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사진을 제시하면서 4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4극의 중요성을 호안공사와 연결시켜 일본이 그들의 영역(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영역에 대한 학습 후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보다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영토교육의 내용은 형식적인 틀에서는 매우 유사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영토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속에서 계열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영토교육은 영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와 더불어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토의식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한일 영토교육, 유사점과 차이점, 위치와 형태, 영역, 영토문제, 정체성

Abstract :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erritorial education described in geography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The following is the result that show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geography textbooks when it comes to territorial education. Korea and Japan have a contrasting territorial background. However, both countries start their territorial education by learning the location and shape of their country. Japanese geography textbooks focus on what people in the world think of Japan, but in case of Korea, the geography textbooks focus on how Koreans look at the world. In short, the territorial education in Japan try to emphasize Japan from the view point of the world. The next common ground is that the two countries provide territorial models in their geography textbooks in order to increase understanding. However, the Japanese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ese territory models much earlier than Korean students and these models help them visualize and solidify their concept of territory. And, the two countries both put great importance on teaching territorial sea. In Japan, they try to include EEZ(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ir territory. Considering these facts, it can be concluded that Japan is enlarging their concept of national territory as maritime territory. Lastly, after learning of territory the two countries both treat on territorial problems. But Korea treats passively territorial problem as such Dokdo, but Japan treats actively their territorial problems. Like that, the contents of territorial education described in geography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are similar in terms of selection, but differ in quality in terms of organization. Therefore, future territorial education in Korea will be actively and successively done through succession and sequence of geography curriculum.

Key Words : territorial education of Korea and Japa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location and shape, territory, territorial problems, identity

* 월서중학교 교사(Teacher, Wolsea Middle School)(hana2110@hanmail.net)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ckcho@knu.ac.kr)

1. 서론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던 국가 간의 경계인 국경선의 의미가 조금씩 희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탈영역화 시대에서도 오히려 국가와 영토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더욱 더 결속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칭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이다. 이러한 영토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것으로서 이는 과거부터 지리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외재적 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를 통해 주권과 영토의 중요성을 일찍이 경험하였으며, 이는 국권회복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를 사이에 두고 긴장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2005년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이어 2006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25일 발표한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의 땅임을 재확인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9).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기할 때마다 독도 문제를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독도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영토와 관련된 주요 국가적·사회적 쟁점으로 인식하여 특별 수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

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에 급급하였다. 특히 영토교육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매우 감정적인 성향을 지닌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면이 많았다. 따라서 현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 특히 지리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영토교육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토문제에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교육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영토교육에 대한 연구들(권영배, 2006; 김병후, 2006; 서태열, 2007; 심정보, 2008; 박선미, 2009; 김경동, 2008)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독도교육에 한정되거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국가의 영토교육의 현상을 분석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상대국인 일본의 영토교육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¹⁾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토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영토와 영토교육

흔히 우리는 영토와 국토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은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토라 하면 국민 자신이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영토가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자기화 될 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반면에 일반적인 국가의 주권과 관련하여서는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임덕순, 2006, 11). 그리고 영토는 영역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영토라는 용어는 영역에 포함되는 협의의 의미보다는 영역과 동일시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영토를 영역과 유사한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이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한 국가는 자신들의 국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를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서 국가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토교육은

단순히 한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교육을 넘어 이를 토대로 형성되는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계획적인 의도인 것이다. 서태열(2007)에 의하면, 영토교육은 장소를 토대로 하여 국가 또는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장소감(sense of place)의 발현이다. 결국 영토교육은 영토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토에 대한 호기심과 애착을 통해 서로를 묶는 결속의 의미로서 정체성의 담보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영토교육은 포섭(inclusion)과 배제(exclusion)의 원리에 기초한 영역성(territoriality)에 기반하고 있다. 영역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영역의 경계(border)를 설정하여 타자와 구별짓기를 하는 것이며 이는 내부를 규제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존스톤 등, 1992). 정체성(identity)이란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에 토대하여 개별 주체들이 '우리'라는 느낌을 갖는 일종의 장소감이다(Rose, 1995; Morgan, 2000; Jones, 2001)). 그리고 영토교육은 바로 이러한 영역성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둔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공간 스케일은 국가이며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상강된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민족주의의 통로가 되며, 국가에 대한 의식구조, 즉 정체성을 다음 세대를 통해 확대 재생산한다(남호엽, 2001). 그리고 포섭과 배제를 통한 영역화 전략은 특정한 스케일의 공간에서 인간을 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조철기, 2010). 오히려 세계화 시대에 정치적,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여 서로 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 개별 국가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영토인식과, 이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영토의식교육으로 나타난다.

3. 우리나라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1)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사회1』 교과서에서 영토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교과서의 대단원 '남부 지방의 생활'의 중단원 '해양 진출의 요지'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이 중단원의 성취기준 중의 하나는 "남부 지방의 해양 진출에 유리한 까닭을 위치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한다."(교육부, 1998)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중학교 『사회1』 교과서 10종을 분석한 결과, 독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는 4종(고려출판, 교학사(차경수 등), 성지문화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 불과하였으며(표 1), 그 내용 역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4종의 교과서도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단지 자연 환경의 측면에서 서술한 경우이며(교학사(차경수 등), 성지문화사), 다른 하나는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한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고려출판,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와 같이 총 10종 가운데 4종의 교과서에서만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역시 영토교육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자의 2종의 교과서는 대단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내용은 남부 지방의 생활을 학습하는 가운데 잠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독도를 남부 지방에 존재하는 화산섬으로만 언급하고 독도의 전경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더욱이 남부 지방과 관련한 지도를 통해 독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본래의 위치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후자의 2종의 교과서만이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고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영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중학교 사회1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출판사명	쪽수	독도 관련 내용
고려출판	7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자료 : 독도는 우리 땅과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도의 위치와 영유권 문제 ②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한일 어업 협정 * 사진자료 : 독도 전경 * 지도자료 : 독도 주변 해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합의되지 못한 채 어업상 한일 중간 수역으로 남아 있다. * 탐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알아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비판해 보자. ② 한일 어업 협정에 관한 자료를 모아 토론해 보자.
교학사 (차경수 외)	72~7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 남부 지방에는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비롯한 많은 섬들이 있다. * 지도자료 : 남부 지방의 지형도와 지역 구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제시 * 사진자료 : 독도,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국방상 요지일 뿐만 아니라 부근에는 수산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성지 문화사	70~7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 동해에는 화산 작용에 의해 형성된 울릉도와 독도가 있으며, 이 섬들은 수산업과 국방상 매우 중요하다. * 지도자료 : 남부 지방의 지형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제시 * 사진자료 : 독도 전경과 독도를 바라보고 있는 관광객들
중앙교육 진흥 연구소	7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자료 : 독도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도의 위치와 섬의 구성 ② 독도 영유권 문제 * 사진자료 : 독도의 동도와 서도 * 탐구활동 : 독도 문제에 관한 신문 자료를 모아,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 보자.

특히, 고려출판 교과서는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독도의 위치적 특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즉,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여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던 1999년 한일 어업 협정과 한일 중간 수역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 오늘날 해양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과 함께 해양이 영토로서 갖는 새로운 의미와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라 하더라도 교과서의 본문이 아니라 읽기자료나 탐구활동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읽기자료나 탐구활동은 본문에 비해 수업시간

에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영토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학교 『사회1』 교과서는 영토교육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는 내용 구성 방식이 지역지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단원 ‘남부 지방의 생활’의 중단원 ‘해양 진출의 요지’에서 10종 중 4종의 교과서만 독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지 2종의 교과서만 독도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 교과서 역시 본문보다는 주로 읽기자료나 탐구활동 등의 보조자료를 통해 독도문제를 설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토교육으로 나아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내용 구성만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인 영토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사회』 및 『한국지리』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분석

(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지리 영역에 해당되는 대단원 ‘국토와 지리 정보’의 중단원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에서 일부 영토교육을 다루고 있다. ‘국토와 지리 정보’의 단원 목표는 “국토의 의미, 국토관 및 그 변천 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국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교육부, 1998, 9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의 성취기준은 “국토를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 생활 공간으로 파악한다.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해서 국토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축적 과정 및 세계관을 조사한다. 전통적인 국토 인식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고, 국토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교육부, 1998, 91)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원 목표와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인 국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러한 국토가 우리 생활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읽기자료와 탐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국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땅은 인간 생활의 근본 터전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우리 국토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둘째, 고지도와 고문헌 상에서 나타나는 조상들

의 국토관 및 세계관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대동여지도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 정보와 세계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탁리지와 같은 지리서 혹은 고문헌에 나타난 국토 정보의 세계관을 파악하고 전통적인 국토 인식과 지리사상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풍수지리 사상과 대지모 사상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국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총 8종의 『사회』교과서 중에서 3종(교학사,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만이 우리나라의 영역을 영토, 영공, 영해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표 2). 또한 우리나라의 경계가 되는 4극에 대해 언급하여 경위도에 대한 학습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학습이 모든 교과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부 교과서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학교 『사회1』과 달리 고등학교 『사회』는 교육과정의 단원 목표와 성취기준을 ‘국토 인식과 국토에 함양을 위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과서의 하나의 중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국토 인식과 국토에는 대체로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으로서, 3종의 교과서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져야 할 영토인식

표 2.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영역 관련 내용

출판사명	쪽수	영역 관련 내용
교학사	10 (1)	* 본문 : 국토의 의미와 구분 (영토, 영공, 영해) * 지도자료 : 국토의 지배 영역, 배타적 경제 수역
법문사	12~13 (2)	* 본문 :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영역의 의미와 구분, 배타적 경제 수역) * 지도자료 ① 우리나라의 영해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 ② 영토, 영해, 영공의 범위 모식도
중앙교육 진흥 연구소	14 (1)	* 본문 : 국토의 의미와 구분 * 탐구활동 ① 우리나라 4극의 경위도 조사 ② 각 국가의 위치, 형태, 크기 비교

과 영토의식교육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고등학교 『한국지리』에서 영토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대단원 ‘국토의 이해’의 중단원 ‘위치와 지역 형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위치와 지역 형성’의 성취기준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파악한다. 대륙과 해양에 접한

입지적 특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력과 발달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관련된 지역 간 상호 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생활권의 형성 배경을 이해한다.”(교육부, 1998, 136)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에 토대하여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영공을 포괄하는 영역에 대한 학습과 함께 독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3.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영역 관련 내용

출판사명	쪽수	영역 관련 내용
교학사	25~28 (4)	(1)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 본문 ① 우리나라의 위치 (위도와 경도) ②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 (영토·영해·영공) * 지도자료 ① 우리나라의 4극 ② 우리나라 영해 범위, 영역 모식도 (통상·직선 기선)
		* 본문: 최근 일본이 동해상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여 독도와 독도 연안이 이에 포함되어 한일간에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다. * 탐구활동: 독도는 우리땅 <자료> ① ‘독도는 우리땅’ 노래 가사 ② 독도 가치에 대한 기사 (황금 어장, 천연 가스, 군사 요충지) <활동> ③ 독도의 자연 환경 ④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⑤ 독도의 중요성 ⑥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
금성출판사	21~23 (3)	(1) 세계 속의 우리나라 * 본문 ①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색 (위도와 경도) ② 영역의 의미와 구분 (영토·영해·영공) ③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 배타적 경제 수역 * 탐구활동: 우리나라의 영역 <자료> ① 우리나라의 영해 지도 ② 영역의 구분 모식도 <활동> ③ 우리나라의 영토 면적 비교 ④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 ⑤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차이
		* 읽기자료: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 (위치와 역사) * 지도자료: 팔도전도 * 사진자료: 독도 전경
대한교과서	22, 24~25 (3)	(1)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 본문 ①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색 (위도와 경도) ② 영역의 의미와 구분 (영토·영해·영공)

		<p>* 탐구활동 : 우리나라의 영해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자료> ① 우리나라의 영해 지도와 글 (통상·직선 기선) ②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의미 <활동> ③ 동해안과 서남해안의 영해 설정 기준 ④ 간척 사업으로 인한 영역별 변화</p> <p><자료> ⑤ 한일 어업 협정 지도와 글 (독도 영유권 문제) <활동> ⑥ 주변국과의 어업 협정이 미치는 영향</p>
두산 동아	24~28 (5)	<p>(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은? * 본문 ① 위치는 왜 중요할까? (위도와 경도) ② 본문 : 영역의 의미와 구분 (영토·영해·영공) ③ 본문 :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 배타적 경제 수역 * 탐구활동 : 위치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①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대와 경도대에 위치한 나라들 ② 만약 우리나라의 위치가 다른 대륙에 존재하였다면? * 도표 : 남한 면적과 비슷한 국가 * 지도자료 : 우리나라의 4극 * 탐구활동, 지도자료 : 우리나라의 영해</p> <p>* 읽기자료 : 독도는 우리 땅 * 지도자료 : 독도의 동도와 서도, 팔도총도</p>
법문사	28, 30~31 (2)	<p>(1)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 될 위치 * 본문 ①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나라 ② 영역의 의미와 구분, 배타적 경제 수역 * 도표 : OECD 국가의 주요 통계 지표 * 탐구활동 :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대에 속하는 도시들의 기후적 특성 * 탐구활동 : 영토의 의미 <자료> ① 박태순의 「국토와 민중」 <활동> ② 우리나라의 면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 ③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넓다고 하는 이유는? * 탐구활동 : 우리나라의 영해의 범위 <자료> ① 해양법에서 설정된 각 수역의 한계 모식도 ②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 지도 <활동> ③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차이점 설명하기 ④ 직선 기선과 통상 기선의 차이</p>
중앙교육 진흥 연구소	26, 29~30 (2)	<p>(1) 우리나라의 위치 * 본문 : 우리나라의 위도와 경도 (2) 우리나라의 영역 * 본문 : 영역의 의미와 구분, 배타적 경제 수역 (영토·영해·영공) * 사진자료 : 독도 전경 (동도와 서도) * 지도자료 : 영역의 범위, 우리나라의 영해 (통상 기선, 직선 기선)</p> <p>* 탐구활동 :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 <자료> ① 한일 어업 협정 수역도 지도 ②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한 글 <활동> ③ 어업 협정 체결 배경을 경제 수역과 연관지어 설명하기 ④ 경제 수역 설정시 바람직한 경계선은?</p>
지학사	17, 20~21	<p>(1) 우리나라의 위치 * 지도자료 : 우리나라의 경도와 위도 (우리나라의 4극)</p>

	(3)	<p>(2) 우리나라의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 영역의 의미와 구분 (영토·영해·영공) * 지도자료 : 영역 모식도, 우리나라의 영해 지도 * 읽기자료 : 배타적 경제 수역, 간척을 하면 영해가 넓어질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활동 : 독도는 우리 땅! 〈자료〉 ① 독도의 위치와 역사 ② 독도의 현황과 가치 ③ 독도 지도 (동도와 서도, 부속 섬들) 〈활동〉 ④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고문헌이나 고지도 찾기 ⑤ 독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조사
<p>천재교육</p>	<p>20, 28 22~23 (4)</p>	<p>(1)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 영역의 의미와 구분 (영토·영해·영공) * 지도자료 ① 우리나라의 4극, 위도와 경도 ②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어업 수역도 * 읽기자료 ① 간척을 하면 영해가 넓어질까? ②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 사진자료 : 위성에서 내려다 본 한반도의 모습 * 탐구활동 : 우리나라의 영역 〈자료〉 ① 영역의 모식도 ② 우리나라의 영해 〈활동〉 ③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독도가 갖는 의미 ④ 영해의 범위, 영해 설정 방법이 다른 이유 <hr/> <p>(3)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자료 : 국토 대탐험, 독도 기행 ① 독도의 위치와 구성 및 형성 시기와 원인 ②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 사진자료 : 독도의 구성, 독도 전경, 독도의 태극기, 팽이 갈매기, 독도에서의 식목 사업

* 법문사의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서술이 없음

첫째,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영공을 포괄하는 영역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도와 경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다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세계의 시간대를 통해 경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지리적, 수리적, 관계적 위치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세계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를 확인할 때 우리나라의 경계가 되는 4극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은 영역의 구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심화 선택 과목인 한국지리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영해를 표시한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최근 영토의 의미가 바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큰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적은 편이다.

셋째, 독도에 대한 내용으로, 교과서의 본문보다는 탐구활동이나 읽기자료 등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도와 관련한 내용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나 자연 환경 및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고지도를 통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독도의 위치, 독도 전경, 독도의 형성 과정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 등을 읽기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핵심에는 역사적 배경도 같

려 있지만, 가장 큰 빌미를 제공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한일 어업협정이다. 실질적인 영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지만, 한 종의 교과서에서만 독도 문제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간수역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독도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 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교 『한국지리』에 와서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요시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토문제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여 실질적인 영토교육으로의 접근에는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4. 일본 중등 지리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분석

1) 학습지도요령과 영토교육

일본 중등 지리 교과서는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와 고등학교 『지리A』와 『지리B』가 있다. 먼저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의 경우 첫 단원 ‘세계와 일본의 지역구성’의 2절 ‘일본의 모습과 여러지역’의 성취기준을 보면 ‘지구의와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의 위치, 시차, 영역의 특색과 변화, 지역구분 등을 취급하여, 일본의 지역구성을 개관하도록 한다. 세계적 시야와 일본 전체의 시야로부터 본 일본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국토의 특색을 다양한 면으로부터 개관하도록 한다.’(文部省, 1998, 33)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영토교육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영토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마다 단원명은 다르지만 첫 단원인 ‘일본의 모습과 여러지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지리A』의 첫 단원 ‘현대세계의 특색과 지리적 기능’의 1절 ‘구면 상의 세계와 지역구조’의 성취기준을 보면 ‘지구의와 세계지도와의 비교, 약지도 그리기 등을 통해서, 지구표면의 대륙과 해양의 형태와 각국의 위치관계, 방위, 시차 및 일본의 위치와 영역 등에 관해서 파

악한다.’(文部省, 1999, 165)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영토교육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첫 단원 ‘일본의 위치와 영역’의 ‘국경과 영토문제’라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영토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리B』는 마지막 단원 ‘현대세계의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의 마지막 절인 ‘민족·영토문제의 지역성’의 성취기준을 보면 ‘인종·민족과 국가와의 관계, 국경, 영토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세계적 시야에서 지역성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문제의 출현에는 지역에 의한 특수성과 지역을 초월한 유의성을 보이는 것을 파악하도록 하여, 그 해결에는 지역성을 근거로 한 국제협력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文部省, 1999, 244)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각국을 비롯한 일본의 영토교육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영역, 국경, 지역 분쟁 등과 관련하여 영토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례지역이 일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들고 있어서 『지리A』에 비해 그 비중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볼 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영토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성과 계열성을 엿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지리A』에서 위치와 영역에 대한 학습을 반복하거나 심화하는 동시에 국경과 영토문제로 나아가는 계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리B』에서는 세계에서 영토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을 사례로 함으로서 영토교육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2) 세계에서 본 일본의 위치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도 지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학습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에서는 일본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리A』에서도 일본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학생들이 지리에 대해 먼저 접하는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에서 더 자세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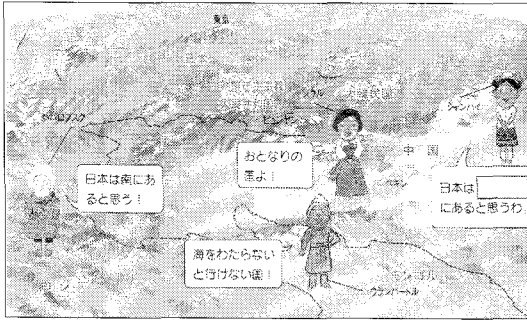


그림 1. 가까운 나라의 친구들이 일본을 본다면? (중학교 사회, 帝國書院, 2005, 26)

한번쯤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궁금증을 시점이 다른 지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일본을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세계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변 국가와 주요 도시를 파악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세계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를 단순 수치에 의한 물리적 거리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소요시간과 같은 시간거리를 활용하고 있다(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6종 중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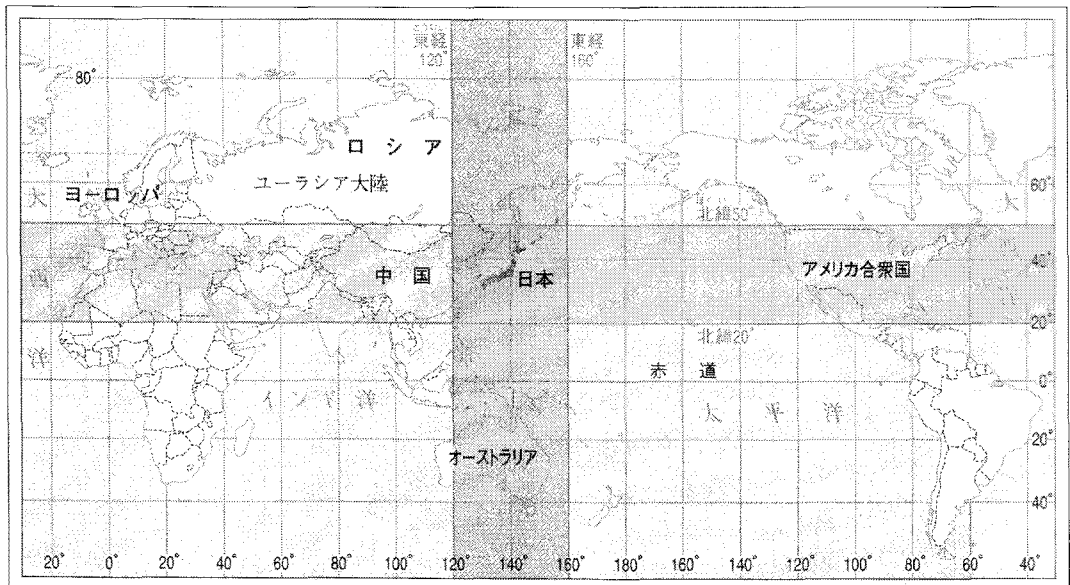


그림 2. 일본이 정중앙에 있는 세계지도(중학교 사회, 帝國書院, 2005, 27)

먼저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내용이 제시되는데, <그림 1>과 같이 일본의 위치를 파악함에 있어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바라본 일본의 위치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시점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의 위치를 살펴봄에 있어 일본이 정중앙에 있는 세계지도(그림 2), 유럽이 정중앙에 있는 세계지도를 함께 제시하여 시점의 차이에 의해 위치를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계지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는데, 왜 극동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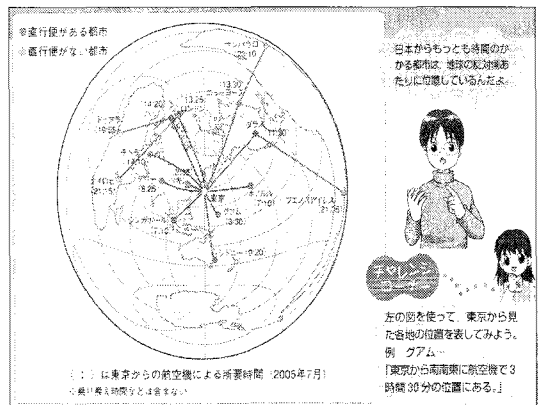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으로부터 각 지역의 시간 거리(중학교 사회, 教育出版, 2005, 31)

중). 즉, 시간거리의 개념을 활용하여 아직 거리 또는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훨씬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3).

3)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았던 영역에 대한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영역에 대한 모식도를 고등학교에 가서야 접하게 되는데, 일본은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인 『지리A』에 이르기까지 영역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B』 역시 『지리A』보다 비중은 작지만 여전히 영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본 역시 영역에 대한 교육은 우리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영역 모식도를 제시 하면서 영토, 영공, 영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림 4〉와 같이 영역 모식도를 살펴본 후에는 영역을 영토, 영공, 그리고 영해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본 후 실제 일본의 영역을 지도에서 살펴보고 있다. 일본은 영역 가운데 특히 영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영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바다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영해의 범위를 표시한 지도가 아니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를 표시한 지도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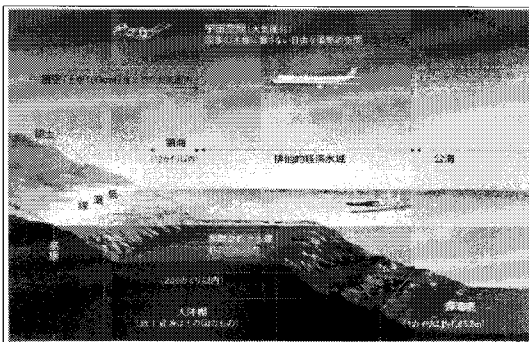


그림 4. 국가의 영역(지리A, 第一學習社, 2006, 16; 지리A, 二宮書店, 2006, 16)

즉,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해의 범위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의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와 『지리A』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그들의 영역의 범위를 더 이상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영역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6종 모두, 『지리A』 12종 중 9종).

또한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는 수준의 관념적인 것에 그치는 반면에 일본의 교과서는 실제 상황을 제시한 후 다양한 질문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일본 육지의 총 면적은 약 38만km²이지만 200해리 수역을 포함시키면 10배는 된다. 200해리와 공해는 무엇이 다를까요?
 - 일본인은 여기서 자유롭게 스쿠버다이빙과 낚시를 할 수 있을까요?
 - 여기에서 침몰물을 본다면 적하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 (중학교 사회, 日本文教出版, 2007, 41)

나아가 〈그림 5〉와 같이 중학교 때부터 세계 주요 국가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일본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토면적의 10배 이상’이라는 문장을 교과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일본은 영토 면적에 비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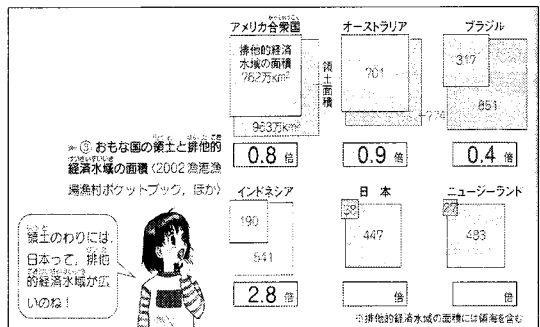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나라의 영토 대비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 (중학교 사회, 帝國書院, 2005, 30)

의 면적이 넓음을 인식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광활한 범위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오키노토리 섬의 호안공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 일본의 4극과 호안공사

일본은 영역을 설명함에 있어 영역 설정의 출발점이 되는 4극의 교육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4극의 위치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일본 교과서에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4극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4극 각각의 지점들을 지도에서 직접 찾아서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지역씩 간단한 설명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6).

4극의 중요성은 오키노토리 섬의 호안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져 그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일본인들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교과서에서 4극을 제시하면서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호안공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호안공사의 의미와 함께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까지 호안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리A』 교과서에서는 총 12종 중 8종의 교과서에서 호안공사의 필요성에 중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호안공사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서 일본이 그토록 지키고자 노력하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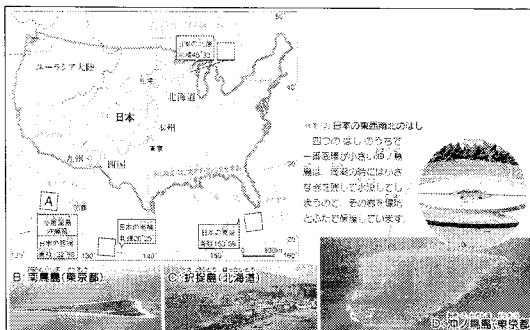


그림 6. 일본 동서남북의 4극 (중학교 사회, 帝國書院, 2005, 28)

최남단의 무인도. 동경항에서 남으로 약 1,700km의 해상에 일본 최남단의 섬인 동경도가 있다. 간조가 되면 동서 4.8km, 남북 1.7km의 아름다운 산호초가 얼굴을 내밀지만 만조 때가 되면 크고 작은 2개 정도의 바위가 1m 정도 해면 위에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곳은 일본 동경도의 일부인 것입니다. 섬은 무인도입니다. 섬이 사라지면 일본은 주변 40만km² 200해리의 어업권과 해저자원의 채굴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988년 4월 정부는 바위에 파도가 직접 닿지 않도록 바위 주변에 직경 50m 정도 도너츠 모양의 철제 블록을 쌓아올리고 그 내측에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공사를 실행하여 1989년 말에 완성하였습니다(중학교 사회, 日本書籍新社, 2007, 43).

오키노토리 섬 이 섬이 수몰된다면 일본은 약 40만km²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액을 투자해서 호안공사를 실시하여 바위를 덮개로 덮어 섬을 보호하고 있다(지리A, 清水書院, 2008, 21).



그림 7. 오키노토리 섬의 호안공사 (지리A, 東京書籍, 2008, 14)

5) 영토문제

일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주로 중학교 『사회 지리』와 고등학교 『지리A』이다. 고등학교 『지리B』의 경우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토 문제보다는 체첸 공화국, 동티모르, 르완다, 카슈미르 지역, 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 세계 전체를 사례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일본과 관련한 영토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중학교 『사회 지리』와 고등

학교 『지리A』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토문제는 북방영토, 센카쿠제도²⁾ 그리고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의 경우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영토문제의 대부분을 북방영토에 집중하고 있다. 6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북방영토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상황을 연대순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방영토를 러시아에게 부당하게 빼앗겨 되찾아야 할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지리A』 교과서로도 이어져 총 12종의 교과서 중 10종의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방영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혼란에 편승해서 소련이 부당하게 점거하고 그것을 러시아가 이어 받았으며, 하루라도 빨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帝國書院, 2008, 14).

북방영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고등학교 『지리B』교과서에서도 이어진다. 세계의 다양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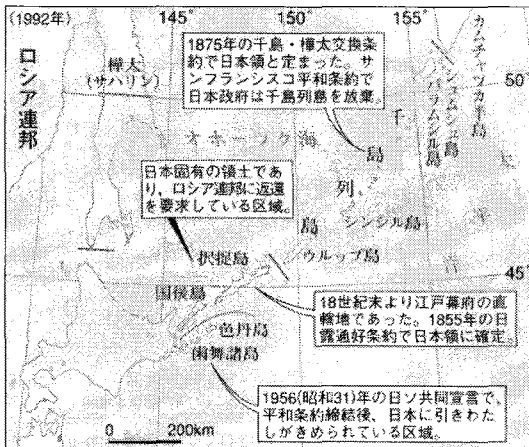


그림 8. 일본이 규정하고 있는 영토문제: 북방영토와 독도(지리A, 教育出版, 2006, 13; 중학교 사회, 日本書籍新社, 2005, 43)

지역을 다루고 있는 『지리B』교과서에서도 일본에서 가장 현안인 북방영토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북방영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의 경우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교과서 가운데 한 교과서에서만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북방영토에서처럼 직접적으로 독도를 일본이 되찾아야 할 땅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일본해의 죽도(한국명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의 과정과 함께 중간수역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면서 독도 주변 수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 관리하는 잠정어업수역임을 지도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잠정수역이라는 의미를 통해 독도가 자신의 땅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런 속내는 『지리A』교과서로 이어져, 총 12종의 가운데 6종에서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 마디로 일본은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를 그들의 영토문제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시마네현에 속하는 죽도에는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있거나(清水書院, 2008, 21).

일본도 1977년에 영해 12해리와 경제수역 200해리를 설정했는데, 일한어업협정에 의해서로 간의 앞바다에서의 조업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계는 잠정수역으로서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200해리 설정에는 영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죽도의 영유권 문제가 재연되게 되었다(東京書籍, 2008, 11).

하지만 다양한 지도와 사진자료를 함께 활용하며 북방영토가 일본의 땅임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독도에 대해서는 본문에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지도나 사진자료는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1종에서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땅임을 주장하면서도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를 생각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난 행위로 판단

된다.

이상의 일본의 영토교육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일본은 세계적 관점에서의 일본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영토의 의미와 범위를 해양영토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토지식교육을 넘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영토인식 및 영토의식교육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영토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성찰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등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영토에 대한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육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자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지만, 도서국인 일본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는 부정할 수 없는 긴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토교육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등 지리 교과서에서 기술된 영토교육 내용은 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알아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두 국가 모두 자국의 형태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는 것을 영토교육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는 자국의 위치를 확인함에 있어서 자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위치를 파악함에 있어서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주변 지역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해 소홀하게 된다. 그로 인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형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³⁾ 또한 일본은 세계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리적 거리가 아닌 비행기 소요시간과 같

은 시간거리의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하여 아직 거리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두 국가는 모두 영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역 모식도를 통해 영역을 영토, 영공, 영해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 상에서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는 시기는 두 국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에 처음으로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교과서에서도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영역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역 모식도가 늦게 제시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제 영역에 대한 이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증한다.

셋째, 영역에 대한 학습에서 눈여겨 볼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국가 모두 영역 가운데 영해에 대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반도국과 섬나라로서 모두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해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영해에 대한 학습은 자국의 지도에 영해의 범위를 표시한 것을 제시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해에 대한 학습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영해를 표시한 지도가 제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영해를 표시한 지도보다는 오히려 배타적 경제수역이 표시된 지도가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단순한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일본이 생각하는 영역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는 일본이 영해의 수준을 넘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인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영역의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중학교 단계에서 벌써 세계 주요 국가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강조는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4극에 대한 학습에서도 이어진다. 두 국가는 모두 4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4극의 위치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일본은 4극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4극의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찾아서 확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4극에 대해 각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4극의 중요성을 호안공사와 연결시켜 일본이 그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4극을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까지 호안공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영역에 대한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두 국가 모두 자국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 영토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자국과 관련된 영토교육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우리나라는 독도와 간도를 중심으로, 일본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 간에는 영토문제를 대하는 자세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그들이 영토문제 가운데서도 실효적인 지배를 하지 않고 있는 북방영토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지 돌아켜 볼 필요가 있다. 영토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이 상황을 막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영토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토 혹은 영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영토의식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영토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영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도의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도 이런 변화의

한 단면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리교육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영토교육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의미의 영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주

- 1) 우리나라의 영토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중등 교과서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총 10종(2001년 발행),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총 8종(2002년 발행), 한국지리 교과서 총 8종(2003년 발행)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영토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교과서 총 6종(2005년 검정), 고등학교 지리A 총 12종(2002년 검정 6종, 2003년 검정 1종, 2006년 검정 5종), 지리B 총 8종(2002년 검정 1종, 2003년 검정 1종, 2006년 검정 3종)을 분석하였다.
- 2) 센카쿠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지리A 교과서 총 12종 가운데 4종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그 외에 남사군도와 관련된 내용도 지리A 교과서 1종에서 다루고 있다.
- 3)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시각을 취하여 우리나라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먼저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계적 스케일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지역적 스케일을 다루어 학습자들이 세계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 교육 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1998, 사회과 교육 과정, 교육부.
- 권영배, 2006, 중등학교 사회과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36, 145-186.
- 김경동, 2008, 한국과 이스라엘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후, 2006, 지리영역에서 국가영역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7, 영토 및 영해교육에서 본 독도 및 울릉도에 대한 인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9-163.
- 남호엽, 2001, 공간스케일의 관점에서 본 민족정

- 체성 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지, 34, 110-126.
- 박선미, 2009, 독도교육의 방향: 민족주의로부터 시민적 애국주의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63-176.
- 서태열, 2007a,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서태열, 2007b, 영토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1-154.
- 심광택, 2005, 일본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학습내용-활동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2), 247-261.
- 심경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3), 179-200.
- 윤옥경, 2006,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역할, 대한지리학회지, 41(4), 491-506.
- 임덕순, 2006,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11-13.
- 조철기, 2010, 영국에서 영역 정체성의 정치와 교육, 사회이론, 38, 175-201.
- 한국지리연구회(편역), 1992, 현대인문지리학사전, 한울, 서울.(R. J. Johnston, Derek Gregory, David M. Smith, 1986,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Second Edition*, Basil Blackwell Ltd., Oxford).
- 文部省, 1998,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編-, 文部省.
- 文部省, 1999,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 文部省.
- 文部科學省, 2008, 中學校學習指導要領, 文部科學省.
- 文部科學省, 2009,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文部科學省.
- Hooson, D., (eds.), 1994, *Geography and National Identity*, Blackwell, Oxford.
- Johnston, R. J., 1995, Territoriality and the State, in Benko, G. B. & Strohmayer, U., (ed.), *Geography, History and Social Scienc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Jones, C., 2001, Where shall I draw the line, Miss?; The geography of exclusion, Lambert, D. and Machon, P., (eds.), *Citizenship through Secondary Geography*, Routledge Falmer, London.
- Morgan, J., 2000, To which space do I belong? Imagining citizenship in one curriculum subject, *The Curriculum Journal*, 11(1), 55-68.
- Rose, J., 1995, Place and Identity: A sense of place, in Massey, D.,(ed), *A place in the world. : Places, Culture and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ck, R. D., 1986,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교신 : 조철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ckcho@knu.ac.kr, 전화: 053-950-5857)
- Correspondence : Chul-Ki Ch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ckcho@knu.ac.kr, phone: +82-53-950-5857)

(접수: 2011.3.24, 수정: 2011.4.21, 채택: 2011.5.29)